

이야기 11 : 돌아온 아들

주제말씀
[누가복음 15: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노는 것만 좋아하는 말쑥꾸러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을 떠나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주시려고 했던 재산을 미리 주세요! 전 집을 나가서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 보낼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작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주어 떠나 보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났어요. 크고 화려한 도시에 도착한 작은 아들은 새로 사귄 친구들을 불러 맛있는 음식과 비싼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왕자처럼 비싼 옷과 보석들을 잔뜩 사며 돈을 마구 썼어요.
결국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아온 전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말았어요.
돈이 떨어지자 작은 아들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모두 떠나고 작은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배고픔을 참다 못한 작은 아들은 어느 집의 일꾼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아들은 너무 힘들고 슬펐어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이 점점 다가오자 작은 아들은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작은 아들은 물면서 고향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 멀리 고향집 대문 앞에서 아버지가 보였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멀리서 거지 모습을 한 작은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자 아버지는 달려가 꼭 안아 주었어요.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맏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귀한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어요.
작은 아들은 비토소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 쓰고, 외우세요 (누가복음 15:32)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활동 2.

아래 그림을 잘라서 오늘 배운 내용의 순서대로 붙여보세요.

1

2

3

4

5

6





이름 :